

조선초기 창건 경복궁의 공간구성*

- 고려 궁궐과의 관계에 대해서 -

金 東 旭

(경기대학교 교수)

1. 머리글

이 글은 창건시 경복궁의 공간구성 특징을 고려 궁궐과의 관계에서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구성이란 궁의 입지, 건물구성과 배치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총칭한 것이다.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도성을 한양으로 옮기고 나서, 왕조의 정궁으로 창건된 경복궁은 새 왕조의 왕권을 상징하는 건물이었다. 경복궁의 창건은 역성 혁명을 주도한 신진 유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고대 중국의 예제에 입각한 질서정연한 건물 배치를 갖추고 있는 점을 큰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복궁의 공간구성에는 전 왕조인 고려시대 궁궐의 영향도 적지 않게 남아있었음은 물론이다. 특히 왕조가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창건된 경복궁의 경우에는 표면에 드러나는 예제의 영향에 못지 않게 전 왕조의 건축적 관습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창건 경복궁의 건축 성격을 파악하는데에는 고려 궁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창건 경복궁에 대해서는 이미 그 건설과정에서 문헌자료를 통한 자세한 고찰이 이루어져 있다.¹⁾ 창건시 중심부의 건물배치에 대해서도 태조실록 기사를 인용한 추정 복원안이 제시된 바 있다.²⁾ 복원안에 따르면, 궁의 기본 배치는 남북 직선축상에 중심 건물이 일렬로 배열되고 주변에 대칭적으로 행각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최근에는 창건 경복궁의 기본적인 건물 배치는 중국 궁궐제도 특히 명대의 궁궐과 공통되며 내전의 건물구성에는 고려의 영향이 남아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³⁾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경복궁의 건설과

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간, 『서울특별시사-고적편』 (1963)은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업적으로 손 꼽힌다.
2 杉山信三, 「高麗末朝鮮初の木造建築に關する研究」 (유인물, 1952. 1984년에 『韓國の中世建築』으로 출간), 제2편 제2장, 京城景福宮創建當初主要部分의 配置
3 韓東洙, 「初探中韓兩國古代建築文化的比較與交流-以14世紀至19世紀爲主-」 (清華大學工學博士學位請求論文, 1997).

* 이 논문은 1996학년도 경기대학교 연구년 제 수혜에 의해 연구되었음

정과 기본적인 건물배치가 파악되었음은 물론, 중국 궁궐과의 관련 및 고려 궁궐의 영향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아울러 최근에는 경복궁 침전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침전의 초기 유구에 대한 단서가 제시되었으며⁴⁾, 고려 궁궐의 건물배치에 대해서도 만월대로 불리던 지역 외에 상용정전과 내전 등이 있던 지역에 대한 추정 건물 배치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⁵⁾

이 글에서는 창건시 경복궁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하고, 관련 사료와 최근의 경복궁 침전지 발굴성과 및 고려 정궁의 추정 배치안 등을 참조하고 『고려사』의 궁궐 관련 기사가운데 특히 고려후기 궁궐의 변화 내용을 활용해서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우선 고려 정궁의 건축적 특징들을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해서 간략히 정리하고 이어서 『고려사』 세가에 실린 무신란 이후 역대 왕실의 궁궐 관련 기사에서 고려 후기의 궁궐 활용과 궁궐내 건물구성에 나타난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경복궁의 창건 과정과 도성내에서의 입지 특징을 정리하고 『태조실록』에 기록된 창건기사에서 기본적인 건물 구성과 건물 배치 모습을 다시 정리하기로 한다. 이 가운데 경복궁의 창건시 건물 배치에 대해서는 이미 스기야마의 추정 배치도가 나와있다. 다만 최근의 침전 지역 발굴등에 의해 기존 추정안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부분적인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앞 장의 고찰을 바탕으로 해서 창건시 경복궁의 공간구성 특징을 고려 궁궐과 관련해서 정의하고자 한다.

2, 고려 궁궐의 건축특성과 시대적 변화

2-1, 고려 정궁의 입지와 건물 배치

고려 정궁은 고려 초기에 개경에 도성을 정하면서 위치가 결정되어 이후 4백여년간 정궁의 자리를 지켰다. 건물 배치는 경사진 지형을 이용해서 불규칙하게 이루어졌으며 진입 방식도 몇 차례 굴곡을 갖는 것이었다.

개경이 고려 도성이 된 것은 919년(태조2)의 일이다. 『고려사』 세가, 태조2년에 “송악산 아래 남쪽에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창건했다”고 적었다. 조선시대 읍지의 개성 그림이나 근대 이후 작성된 개성의 지형도에 의하면, 개경의 형상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같은 곳이다. 북쪽은 송악산이 자리잡고 그 줄기가 동편과 서편의 산 봉우리로 이어지고 다시 남쪽 산으로 연결되는 안쪽에 도읍이 자리잡은 것이다. 북쪽 송악산에서 흘러 내리는 큰 물줄기와 서남쪽 언덕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만나 도성내를 가로 지르면서 동남쪽 낮은 곳으로 흘러 나간다.

궁궐은 송악산 아래 남향하여 자리 잡았다. 송악산이 약간 북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궁궐도 도성 중심에 있지 않고 서북쪽에 치우치게 되었다. 도성의 간선도로는 중심부를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는 것과 궁궐 앞에서 남북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으며 두 도로가 교차하는 소위 십자가가 도성내 중심 지역이 되었다.

궁궐의 모습은 왕권이 가장 안정되고 건물 구성이 충실했던 기간인 11, 12세기경의 대체적인 윤곽을 『고려도경』이나 『고려사』에서 그려볼 수 있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고찰된 궁궐의 윤곽은 다음과 같다.⁶⁾

궁궐은 바깥 성인 황성과 안 성인 궁성의 이중 성벽으로 둘러 쌓였다. 황성의 정문은 동남 모서리에 있는 광화문이다. 광화문은 동향해 있으며 문 밖으로는 6조 관청을 비롯한 주요 관청들이 좌우에 도열해 있었다. 광화문을

4 경복궁 침전구역의 발굴조사는 1990년부터 3년간 실시되었으며 그 성과가 『景福宮寢殿地域發掘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95)로 간행되었다.

5 김동욱, 「11, 12세기 고려정궁의 건물구성과 배치」(『건축역사연구』 제13호, 1996)

6 11, 12세기경 궁궐 모습에 대해서는 朴龍雲, 『高麗時代開京 研究』(1995)와 김동욱, 「11, 12세기 고려 정궁의 건물구성과 배치」(1997)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들어서서 서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꺾인 곳에 궁성 정문인 승평문이 남향해 있다. 승평문을 들어서면 넓은 구정이 있고 구정을 지나 의봉문을 거쳐 북쪽으로 곧 바로 나아가면 가파른 경사지 위에 대규모 불교행사나 송나라 사신 접견을 위해 마련한 회경전이 있고 그 뒤로도 몇 개 건물이 놓인다. 또 의봉문에서 서쪽으로 난 문을 지나면 건덕전과 편전, 침전등이 있는 상용 부분이 나온다. 상용 부분의 각 건물들은 앞 뒤로 나란히 놓이지 않고 주변을 흐르는 광명천의 물줄기를 따라 서북 방향으로 비스듬히 놓인다.

이제까지 고려 정궁에 대해서는 소위 만월대로 불리는 회경전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건물 배치도가 널리 알려져 왔고 회경전 주변만이 궁궐의 중심 영역으로 인식되어진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고려 정궁의 건물 배치는 회경전과 그 뒷편의 몇 개 건물들이 이루는 약간 비틀어지면서 건물이 앞뒤로 있는 모습을 기본적인 건물배치로 파악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문헌 연구에 의하면⁷⁾, 11, 12세기경 고려 정궁의 경우, 회경전은 특별한 의식을 위한 제한된 지역이었고 정작 궁궐의 일상적인 의식이나 생활이 이루어진 지역은 그 서북쪽 일대의 건덕전과 편전, 침전 등이 있는 곳이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이 건덕전 주변 지역은 건물 조성 순서로 보아 회경전 주변보다 먼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고려 정궁은 처음에는 건덕전 주변이 조성되었다가 나중에 대규모 불교행사나 송나라 사신의 접견이 행해지면서 회경전 주변이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현종 때 궁궐을 재건한 때거나 그 이후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고려 정궁의 전체 건물 배치는 종래 언급된 것처럼 회경전과 그 전후의 건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광화문에서 승평문을 거쳐 건덕전과 편전, 침전으로 연결되는 부분과 회경전 일곽의 두 영역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고려

정궁의 기본적인 건물 배치는 동남향으로 흐르는 광명천 물줄기를 따라 황성 정문인 광화문에서 궁성 정문인 승평문을 거쳐 서북 방향으로 몇 차례 진입 방향이 직각으로 꺾이면서 상용 정전인 건덕전과 편전, 침전이 형성되고 이것과는 별도로 승평문에서 남북 진입축을 따라 회경전과 그 후방 건물이 조성되는 복합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 고려 정궁과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고려 정궁의 공간구성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전체 궁궐이 상용 정전인 건덕전과 그 주변 영역, 그리고 특별한 의식을 위해 마련한 회경전과 그 후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이며, 두 영역이 각기 지형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축을 형성하면서 조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2-2. 고려후기 궁궐 운영과 건물구성 변화

고려의 궁궐은 1170년 무신란이 일어나면서 크게 변질되기 시작했다. 특히 원나라의 요구에 따라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 역대 왕들은 거의 정궁에 머물지 않고 도성내 여러 곳에 마련한 이궁에 주로 머물렀다. 궁궐 운영에 변화가 생기면서 궁궐내 건물구성에도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무신란이 일어나고 이후 80년 동안 무인정권이 이어지면서 왕들은 실권을 잃었다. 자연히 궁궐은 형식적인 의식을 치르는 공허한 장소가 되었고 왕들은 정궁을 떠나 별궁에 머물거나 가까운 신하의 집에 머무는 일이 잦아졌다.

『고려사』에는 무신 집권 말기인 고종때부터 고려의 궁궐을 '본궐'과 여타 별궁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다. 본궐은 송악산 아래 있던 정궁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때 와서 새삼스럽게 여러 별궁들에 대해서 정궁을 구분지어 호칭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 결과로 보인다. 그만큼 정궁 이외에 다른 궁궐의 비중이 커진 점을 반영한다.

13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몽고의 침입으로

7 김동욱, 앞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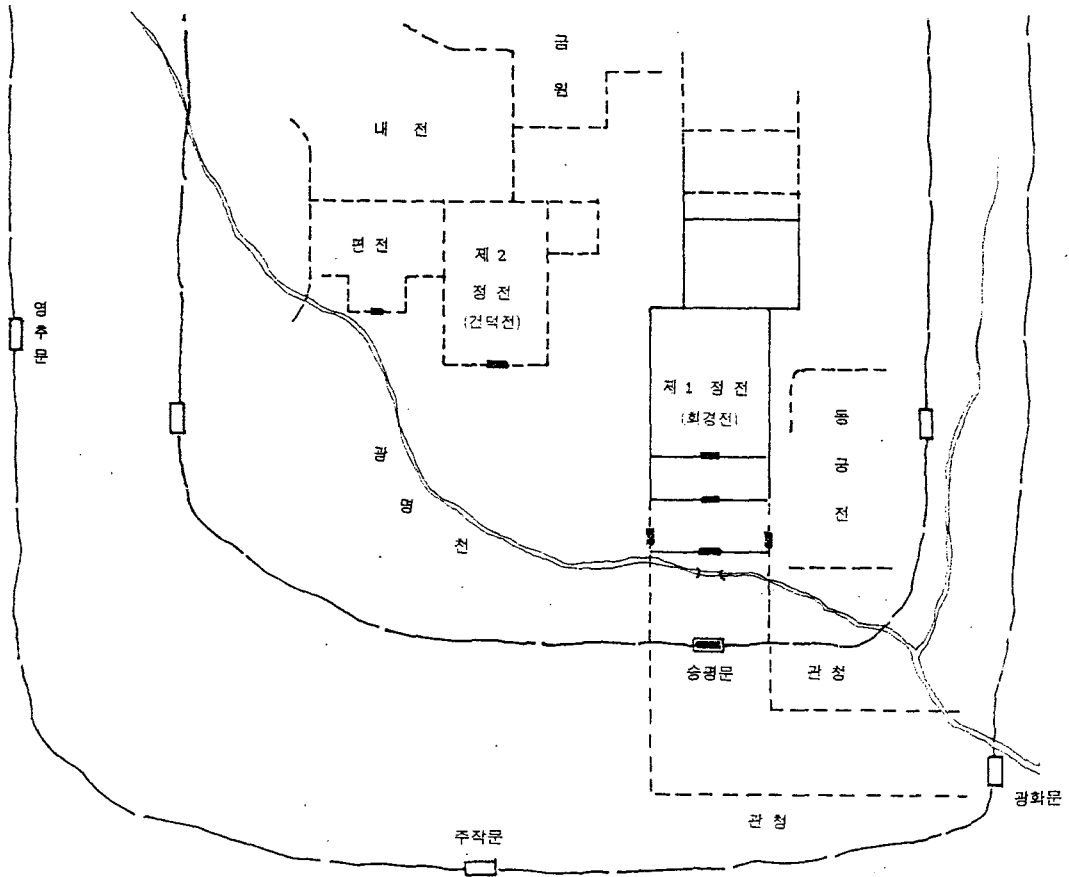


그림-1 고려 정궁 건물배치 추정 개념도(김동욱, 「11, 12세기 고려정궁의 건물구성과 배치」에서)

무인정권은 도성을 강화로 옮겨 향전했지만 결국 1270년, 몽고세력과 강화를 맺고 개경에 돌아왔다. 소실되었던 정궁은 다시 재건되었지만 과거 정전으로 쓰였던 건덕전이나 회경전은 복구되지 않고 왕의 침전이던 강안전만이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부터 거의 모든 왕들은 정궁에 거처하지 않고 도성 여러 곳에 이궁을 세워 자주 장소를 옮겨가며 거처하였다. 또한 원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 들이게 됨에 따라 공주들을 위한 별도의 궁궐을 조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원의 정치 간섭기에 고려의 궁궐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사』 세가편에

서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표-1은 고려가 원과 강화를 맺은 원종 11년에서 고려말 사이에 존재하던 주요 궁궐과 그 이용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본궐은 고려말 공민왕때까지 존속해 갔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 역대 왕들이 궁궐로 사용하고 거처한 곳은 본궐이 아니고 도성내 여러 곳에 있던 이궁이나 별궁들이었다.

충렬왕은 즉위초에는 본궐을 거처로 삼았지만 즉위 6년부터는 주로 수강궁과 수녕궁을 이용했고 충숙왕 이후로는 연경궁이 중창되어 대부분의 후대 왕들이 연경궁을 거처로 삼았다. 그 외에도 죽판궁, 남산궁, 제상궁, 사판궁등이

표-1 고려 후기 본궐과 별궁의 활용 추이(『고려사』 세가편에 의함)

	원종 충렬왕 (1275-1308)		충선 충숙왕 (1313-1339)		충혜 공민왕 충목 (1351-1374)		우왕 창왕 공양왕			
	1280	1300	1320	1340	1360	1380	1390			
本闕	[Horizontal line spanning from 1280 to 1360]									
沙坂宮	[Double horizontal lines]									
堤上宮	[Double horizontal lines]									
竹坂宮	[Double horizontal lines]									
壽昌宮									[Double horizontal lines]	
應慶宮	[Double horizontal lines]									
壽康宮	[Double horizontal lines]									
壽寧宮	[Double horizontal lines]									
梨峴新宮									[Double horizontal lines]	
燕慶宮									[Double horizontal lines]	
永安宮 (時御宮)									[Double horizontal lines]	

충렬왕 이전에 존재했고 그 후에는 연덕궁(영안궁), 수창궁등이 있어서 간혹 활용되었다. 수창궁은 우왕때 재건되어 왕실의 가장 중요한 궁궐로 활용되었으며 조선 태조가 된 이성계가 이 궁에서 즉위하였다.

그 사이 본궐은 주로 왕의 즉위식이나 왕실의 불교행사장으로 자주 활용되었지만 상용 거처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고려사』 세가에 의하면, 충선왕을 비롯한 여러 왕이 본궐 강안전에서 즉위했다고 하며, 소재도량, 인왕도량을 비롯한 각종 불교행사가 본궐 또는 강안전에서 거행되었다고 한다. 『고려사』에는 대개 ‘幸本闕’ 또는 ‘幸康安殿’ 이라고 해서 왕이 행사때에 한해서 본궐에 행차하였다고 적고 있다. 즉 왕은 평상시에 다른 이궁에 거처하면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본궐에 행차하였던 것이다.

본궐이 왕의 상용 거처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건물 구성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고

려사』 기록에 의하면 이 때 행사가 벌어진 장소는 단지 본궐이라고 지칭하거나 아니면 강안전만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충렬왕때부터는 거의 대부분 행사가 강안전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간혹 강안전은 본궐 자체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즉 충선왕 원년에는 본궐과 연경궁 두 궁궐의 개축이 있었는데 『고려사』에는 ‘重新 康安 燕慶 二宮’이라고 적고 있다. 본궐이란 명칭 대신에 강안전이 궁궐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도 충숙, 충목, 충정왕에 이르기까지 본궐의 대부분 행사는 오로지 강안전만이 명시되어 있다. 강안전에서는 충혜왕과 충정왕, 공민왕의 즉위식이 거행되었다.⁸⁾ 또 왕이 직접 드리는 기우제나 다른 제사도 여기서 벌어졌고 공민왕의 보살계도 이 건물에서 이루어 졌다.⁹⁾ 강안전의

8 『고려사』 세가, 충렬왕 24년 정월, 충혜왕 즉위년 8월, 충정왕 원년 6월, 공민왕 즉위년 12월
9 『고려사』 세가, 공민왕 원년 5월

에 본궐에서 행사가 치러진 곳으로는 구정과 의봉루가 있을 뿐이다.¹⁰⁾

강안전은 본래 왕의 침전 건물의 명칭이었으며, 인종16년에 왕의 침전이던 증광전을 고친 명칭이었다. 과연 개경 환도 후 재건된 강안전이 인종 이전의 왕의 침전 건물과 같은 건물이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환도후에는 그 전 처럼 궁의 정전을 상용정전과 불교행사나 중국 사신 접대를 위한 정전으로 2중으로 구성하지 않았던 점은 분명하다.

왕들이 별궁이나 이궁에 머물면서 궁궐내 건물 구성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는데 내전의 비중이 커진 것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다. 공민왕때 들어와서는 궁궐내에 보평청이라는 새로운 건물이 생긴 점도 주목되는 변화이다.

흔히 궁궐에서 내전이라고 하면 왕을 비롯해 궁궐에 거처하는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곳을 가리킨다. 『고려사』 세가에 의하면, 11, 12세기 고려 본궐이 주로 궁궐로 쓰였을 때 궁궐의 행사가 이루어진 곳으로 '내전'이라고 표기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비록 그 행사가 내전에 속하는 곳에서 벌어진 경우에도 대개는 건물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표기하였다. 이에 반해서 충렬왕 이후의 기사에는 '내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특히 본궐이 아니고 이궁에서 벌어진 행사를 기록할 경우는 행사 장소를 따로 건물명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궁궐명을 밝히거나 내전으로 기록하였다. 이것은 이 시기에 와서 내전이 갑자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기 보다 기록의 관습상 이궁에서 벌어진 소규모 행사에 일일이 건물명을 밝히기 보다 단지 내전이라고 기술하는 편의성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정전이나 편전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궁의 경우 왕이 거처하는 장소를 통상적으로 내전으로 기술한 결과로도 이해된다. 어떤 배경에서건 원 간섭기 이후에 궁궐에서 내전이라는 개념은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통용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고려후기 궁궐 관련 기사에 나타난 또 다른 것으로 報平廳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공민왕 이후의 기사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報平』은 어휘로 보면 죄를 심판하되 공평하게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왕이 편전에서 시행하는 일 중에 특히 중요시한 것은 죄인의 처단이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죄인의 경우 왕이 편전에서 그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조정의 관행이었다. 보평청은 바로 이러한 죄인을 처단하는 장소를 가리키며 그것은 바로 편전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려사』에는 공민왕전까지 보평청이란 명칭은 전혀 보이지 않고 편전이 간혹 기록되어 나온다. 그러던 것이 공민왕대에 와서 비로소 보평청에 대한 기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 보평청의 출현은 공민왕 5년 5월 기사로, '왕이 보평청에 나 앉아 바둑두는 것을 구경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동 19년 12월 기사에 '왕이 처음으로 보평청에 나와서 정사를 보살피었으며 사관2명도 왕의 좌우에 있었다.'는 대목이 보인다. 이듬해 3월에는 '왕이 보평청에 나와서 정사를 보면서 간관들에게 말하기를 처음에는 1개월만에 두번 정사를 보지 못할 것은 뻔하다. 금후로는 큰 일을 보평청에서 정사보는 날을 기다리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는 대목으로 이어진다. 첫번 기사의 바둑 이야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19년의 기사에는 이때부터 확실히 왕이 보평청을 정사를 보는 곳으로 삼기 시작했음을 말해주고 다시 20년 기사를 보면 왕은 보평청에서는 큰 일을 처리하였으며 그것은 한달에 한번 정도에 그쳤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후 고려말까지 『고려사』 기사에는 종종 보평청에서 왕이 정사를 본 기사를 싣고 있다. 공민왕은 원의 정치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적으로 고려의 왕권을

10 이것으로 미루어 고려 본궐의 정전이던 건덕전(후에 관덕전으로 개칭)과 회경전(선경전으로 개칭)은 재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고려사』 세가의 기록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근 이루어진 회경전터의 발굴에서는 건물터에서 다섯 차례 정도의 중건이 있었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므로 강화 환도 이후에도 회경전에 건물이 지어졌을 가능성을 전혀 지울 수는 없다. (정찬영, 「만월대 유적에 대하여(1)」, 1989)

회복하기 위한 개혁을 이룬 왕으로 평가된다. 보평청의 설치는 이러한 공민왕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고려사』 세가의 기사를 중심으로 고려 후기 궁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정궁 대신에 별궁이나 이궁의 비중이 커지고 그것을 반영하듯 정궁은 본궐로 호칭되기 시작하였다. 본궐에서는 과거 처럼 상용 정전과 대규모 행사용 정전으로 두 개 정전을 운영하던 제도는 사라지고 단지 강안전 한 곳에서 모든 중요 행사가 치러졌다. 반면, 이궁들에서는 내전이 중요한 공간으로 부각되었다. 아울러 공민왕 이후로는 새롭게 편전의 기능으로 보평청이 등장하는 변화를 확인하였다.

3. 창건 경복궁의 건물구성과 배치

3-1. 경복궁 건설과정과 도성내 입지

경복궁은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도성을 한양으로 천도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곧 바로 공사에 들어갔으며 만 1년 후에 일차적인 완성을 보았다. 궁궐이 완성되고 2년 후에는 궁궐 주변을 감싸는 궁성의 축조가 이루어져 궁궐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아울러 궁 정문 앞으로 6조를 비롯한 관아가 설치되어 정문 주변의 모양도 갖추어졌다.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는 즉위 2년 되던 해부터 도성을 새로운 장소로 옮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1394년(태조3) 8월에는 남경 옛 궁궐터가 있던 한양을 새 도읍으로 결정하였다. 도읍이 정해지고 난 후에는 종묘 사직을 세우고 궁궐을 짓는 공사가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한양을 새 도읍으로 결정한 것은 1394년(태조3) 8월13일이었으며 그로부터 보름 정도가 지난 9월1일에는 공사를 담당할 임시 기관으로 신도궁궐조성도감이 설치되었다. 도감의 책임자인 判事에는 靑城伯 沈德符, 左僕射 金湊, 前政堂文學 李頤, 中樞院 學士 李稷이 임명되었다.

9월9일에는 종묘, 사직, 궁궐, 시장, 도로의 터를 정하였는데 일을 주관한 사람은 判門下府事 權仲和, 判三司事 鄭道傳외에 심덕부, 김주, 남은, 이직등이었다. 권중화등이 임금의 명을 받고 작성한 내용에 의하면, “궁궐 옛터가 너무 좁다 하고, 다시 그 남쪽에 해방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임좌병향이 평탄하고 넓으며, 여러 산맥이 굽어 들어와서 지세가 좋으므로 ‘여기를 궁궐터로 정하고’, 또 그 동편 2리쯤 되는 곳에 감방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임좌병향에 종묘터를” 정하였다고 한다.¹¹⁾

종묘와 궁궐은 공사 착수 만 1년이 지난 1395년(태조4) 9월29일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때는 궁궐의 내부 중심부만 이루어졌고 궁궐을 감싸는 궁성이나 궁궐 앞에 세워지는 의정부나 6조등 관청은 몇 해 뒤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궁궐이 완성된 이듬해 1월에는 도성 주변에 성곽을 쌓는 성곽 축조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 해 여름, 2차 공사를 벌여 성곽을 지었다. 이때 성곽 8곳에 누각을 갖춘 성문을 세웠으며 각 성문에 이름을 정하였다.

궁궐의 외곽 울타리인 궁성이 이루어진 것은 궁궐 완성 3년 후인 1398년(태조7)이었다. 이 해 1월에 민정을 징발해서 궁성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는 겨울 동안에 대체적인 궁성 성벽 축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다시 그 해 7월에 경기 좌도와 충청도 군사 3,700명을 동원해서 궁성을 수축하였다. 궁성에는 정문인 남문외에 동문과 서문이 갖추어져 있었다.¹²⁾

한편 궁궐이 창건되었을 때 실록의 말미에

11 『태조실록』 권6, 태조3년 9월 병오

12 이 때에는 아직 북문을 조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태조실록』 9월29일자 기사에는 궁궐이 완성된 기사의 말미에 ‘後築宮城, 東門曰建春, 西曰迎秋, 南曰光化門’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세종 3년 7월21일 실록기사에는 “경복궁에 4대문이 갖추지 못하여 태조때에 북문에 목책을 설치한 것을 그뒤에 막아 버리고 성을 쌓았는데, 내가 다시 북문을 뱉까 하는데 어떤가.’하니, 모두가 ‘좋습니다.’하다.”라는 대목이 있다. 아마도 처음에 북쪽의 궁성은 간단한 목책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본격적인 궁문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는 “(뒤에) 문 남쪽 좌우에는 의정부, 삼군부, 육조, 사헌부등의 각사 공청이 벌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궁궐 창건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궁성 문 남쪽에 의정부나 6조등 여러 관청이 좌우에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들 관청이 조성된 시기는 궁성과 궁문이 조성된 태조7년때로 추정된다.¹³⁾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경복궁은 도성 서북쪽에 남향해서 자리잡게 되었다. 한양의 지세는 잘 알려진대로 사방에 산이 둘러싸고 있는 곳이다. 북쪽에 백악,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 남쪽에 목멱산이 놓여있다. 이 네 산 정상을 연결하면서 성곽이 불규칙한 타원형을 이루면서 도성 내부를 감싼다. 산 기슭에서 성 중심부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형성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흐름은 백악의 좌우에서 흘러 내리는 것으로, 이 물이 성 중심부를 거쳐 동쪽으로 흘러 나간다.

경복궁은 이런 지형을 갖춘 도성 내 서북쪽 치우친 곳에 위치하였다. 궁의 위치가 이처럼 성안 한쪽에 치우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도성의 주산인 백악을 뒤에 두고 그 아래 궁궐 터를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궁궐 터 좌우로는 백악의 기슭에서 시작되는 두 개의 큰 물줄기가 각각 남쪽으로 흘러내린다. 궁터는 두 물줄기의 가운데 위치하는 셈이다.

궁터의 지세는 비교적 평탄하다. 이런 평탄한 자리에 궁궐을 남면해서 조성하고¹⁴⁾ 남북

방향으로 긴 장방형에 가까운 궁성을 쌓았다. 남면한 궁궐 정문 앞 좌우로는 의정부, 삼군부 외에 6조의 관청이 도열하도록 하였다.

3-2, 창건 경복궁의 건물구성과 배치

『태조실록』에는 창건시 경복궁의 중요 건물명과 규모, 및 주변 행각의 규모가 명시되어 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창건시 경복궁 중심부의 공간구성과 기본적인 배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궁궐이 완성된 태조4년 9월29일 실록에 기록된 중요 건물의 명칭과 규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燕寢 7間, 東西耳房 各2間, 北穿廊 7間, 北行廊 25間, 東隅連排 3間, 西隅 連排 樓5間, 南穿廊 5間

東小寢 3間, 穿廊 7間, 穿廊 5間

西小寢 3間, 穿廊 7間, 穿廊 5間

報平廳 5間(視事之所, 燕寢之南), 東西耳房 各1間, 南穿廊 7間, 東穿廊 15間, 西穿廊 15間

燕寢東行廊 23間

燕寢西行廊 20間

이상은 內殿이 됨

正殿 5間(受朝하는 곳, 報平廳의 남쪽), 上, 下 月臺가 있음(깊이 50척, 너비 112척5촌) 東西北階 너비 각15척, 上層階 높이 4척, 石橋 5급, 中階 4면 너비 각15척, 下層階 높이 4척, 石橋 5급, 北行廊 29間, 穿廊 5間, 水刺間 4間

東樓 3間, 東樓北行廊 19間, 東樓南行廊 9間

西樓 3間, 西樓北行廊 19間, 西樓南行廊 9間

殿庭 너비 東西 각 80척, 南 178척, 北 43척

殿門 3間, 左行廊 11間, 右行廊 11間, 東角

일치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경복궁의 좌향은 창건시부터 계좌정향에 맞추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 지형을 측량할 단계에서 정했던 입좌병향을 실제 건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세등을 고려해서 변경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13 의정부나 각사 관청은 궁궐 정문 앞 좌우에 나열되었다. 집이 들어서서 순서로 보아 이 건물들은 궁궐 정문이 지어지고 나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각 관청의 조성 시기는 궁성과 궁궐문이 완성된 태조7년때었다고 짐작된다.

14 태조3년의 실록 기사에 의하면 처음 도성터를 정하고 권중화등이 궁궐터를 정할 때 궁궐의 좌향은 입좌병향이었다고 하였다. 입좌병향은 방위상으로 보아 정남향인 자좌오향에서 동쪽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진 좌향을 가리킨다. 그런데 후대의 경복궁 좌향에 대한 기록에는 경복궁의 좌향은 계좌정향이라고 적혀있다. 계좌정향은 자좌오향에서 반대로 서쪽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진 좌향이다. 그리고 현재의 경복궁 좌향 역시 정남향에서 약간 서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계좌정향에 가까운 좌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침전 지역 발굴에서도 강녕전터에서 임진왜란 이전의 3차례 시기가 다른 유구를 출토했는데 모두 좌향이 계좌정향과

樓 2間, 西角樓 2間
 午門 3間, 東行廊 17間, 庭中 石橋御溝가 있음(물이 흐르는 곳임), 門左行廊 17間, 右行廊 17間, 東角樓 2間, 西角樓 2間
 東門 日華, 西門 月華
 (그 밖에 廚房, 燈燭引者房, 上衣院, 兩殿司饗房, 尙書司承旨房, 內侍茶房, 敬輿府, 中樞院, 三軍府, 東西樓庫등이 390여간임)

위에 적은 기사에 의하면 태조4년에 완성된 궁궐의 건물 구성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성된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내전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정전과 주변 건물 영역이다.

여기서 내전에 속한다고 명시한 건물중 중요한 것을 들면 연침과 동소침, 서소침 그리고 보평청이 있다. 연침은 왕과 왕비의 침전이다. 연침 주변에 별도의 침소로 동서침과 서소침이 마련되었다. 연침과 동서소침은 서로 천랑이라고 하는 행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물들은 다시 북쪽과 동서쪽으로 행랑이 둘러 쌓고 있는 형상이다. 북쪽 행랑의 좌우 모서리에는 3칸 건물과 5칸 서루가 이어 있다고 한다. 연침의 남쪽에 보평청이 있다고 하였다. 보평청은 앞절에서 보았듯이 고려말 공민왕 이후 고려사 기사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왕의 업무보는 건물 즉 일종의 편전이다. 『태조실록』에서는 이 보평청까지를 내전이라고 적었다.

정전 영역에서는 중심이 되는 정전외에 전문과 오문, 그리고 궁궐내 관청이 속해있다. 정전은 수조지소 즉 왕이 문무백관으로 부터 조하 받는 곳이다. 정전은 보평청의 남쪽에 자리잡았다. 정전에는 상하 2층의 월대가 있고 월대에는 각 면에 계단이 놓여있다고 하였다. 정전 주변 역시 행랑으로 둘러쌓여 있고 행랑에 의해 정전 앞에는 넓은 전정이 형성된다. 전정의 크기는 너비가 동서로 각 80척, 북쪽은 43척, 남쪽은 178척이다. 정전의 남쪽에 전문이 있고 문 좌우로 행랑이 이어지며 행랑 양끝은 각루가 놓인다.

전문의 남쪽에 오문이 있다. 오문은 남쪽 제일 바깥의 문이 되는 셈이며 궁의 정문이 된다. 오문 좌우로 행랑이 이어지고 행랑 양끝에 다시 각루가 놓인다. 이 밖에 주방이나 양전사옹방, 내시다방등 궁궐의 시종드는 사람들을 위한 건물과 중추원, 삼군부등 업무와 경비를 위한 건물이 있다.

태조4년의 실록 기사는 창건시 경복궁 중심부의 기본적인 배치 모습을 짐작하게 해 준다. 이 기사에 의하면 창건시 경복궁의 건물배치는 기본적으로 남북 직선축상에 중심 건물이 나란히 놓이고 각 중요 건물 주변에는 네모 반듯한 행각이 좌우 대칭으로 감싼 모습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내전의 각 전각과 정전은 천랑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창건 경복궁의 건물 배치는 이미 스기야마에 의해 복원안이 제안된 바 있으며 그 복원안은 대체로 경복궁 배치의 기본 윤곽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된다.¹⁵⁾ 그러나 스기야마의 복원안은 경복궁의 전체 규모를 실제보다 크게 축소시킨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스기야마는 두 가지의 복원안을 제안했는데, 두 가지 안 모두 행랑이나 천랑의 처수를 획일적으로 지나치게 축소해서 설정했고 그 결과 정전의 월대 규모도 월대의 기능에 맞지 않게 축소시킨 것으로 보인다.(그림-2)

스기야마의 복원안에서 고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전과 정전 주변 월랑, 그리고 내전의 천랑 주간을 모두 10척으로 일률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이다. 최근의 침전 지역 발굴조사에 의하면, 강녕전 주변의 천랑으로 추정되는 유구의 주간은 10척 미만의 좁은 주간이고, 위치에 따라 불규칙한 간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천랑은 주로 통로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건물 외곽의 행랑과는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15 스기야마는 2 가지 복원안을 제시하였다. 두 안은 기본적으로 거의 유사하고 다만, 정전 좌우 행랑의 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내전 서북 모서리 누각의 건물 크기를 달리하고 있다. (杉山信三, 앞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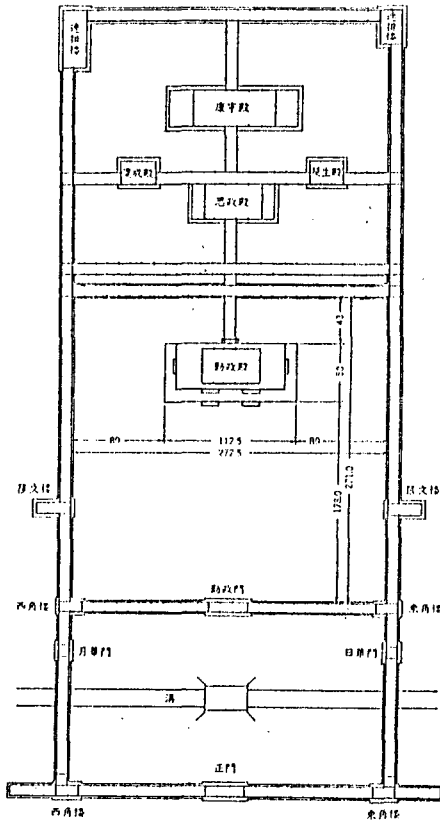


그림-2 杉山信三의 경복궁 창건당초 추정 배치 복원안

타당할 것이다. 또한 정전이나 오문 주변 월랑의 경우는 누각(용문루 등)이나 출입문 등이 있어서 단순히 월랑 간수에 10척을 대입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정전 주변 행랑의 모습을 왜소하게 만드는 문제를 낳는다. 둘째, 정전의 상하 월대 크기를 『태조실록』의 기사만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 실록에 적은 월대 크기 '沈 50尺, 廣 112.5尺'을 전체 하월대의 가로, 세로 크기로 삼은 결과 월대 위에는 정전 건물이 측면 3칸 정도의 좁은 건물만 겨우 올라서는 모습이 된 것이다. 이것은 정전이나 정전 월대에서 거행되는 조하의식이나 기타 의례를 수용하기 불가능한 치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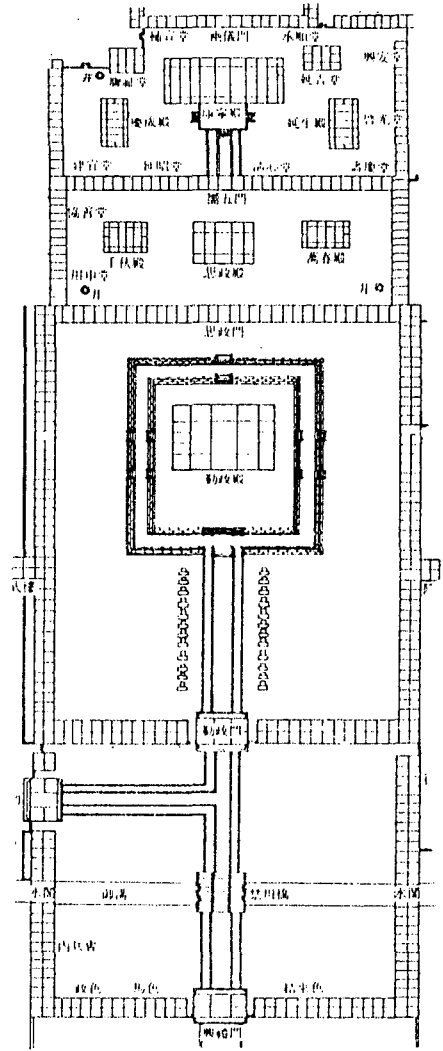


그림-3 「복궐도형」에 묘사된 중건 경복궁 중심부 배치도

다.16)

위와 같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창건 경복궁의 새로운 추정 복원안을 제시하기

16 『세종실록』 권132, 오례, 가례서례에 제시된 '勤政殿朝賀之圖'만을 보아도 근정전 앞 상하 월대에는 많은 의식용 기물과 군사들이 도열하는 공간이 필요하며 근정전 자체도 측면 3칸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내부 기능을 갖추고 있다.

로 한다. 새 복원안은 전체 건물 배치의 형태는 스키야마의 복원안과 거의 공통되고, 정전 및 정전 월대의 규모 그리고 정전과 전문 좌우 월랑의 규모에 차이를 보이며, 내전의 천랑 구성방식에 약간의 차이를 갖는다.

새 복원안 작성의 기본 전제는 창건시 경복궁의 중심부는 고종때 중건된 경복궁의 중심부와 유사한 규모를 갖는다는 점이다. 즉 창건시 정전이나 침전, 그리고 전문과 오문의 위치는 고종 중건시의 근정전과 강녕전, 그리고 근정문과 홍례문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이다. 이러한 전제의 근거는 첫째, 최근 실시된 강녕전 주변 발굴조사에서 창건시 강녕전의 위치와 중건시 위치는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둘째, 창건시 조성된 정전(근정전)에서 오문(홍례문)까지 그리고 몇 년 뒤에 설치되는 광화문까지의 기본 골격은 이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까지 거의 대대적인 개축이 없었으며, 고종 중건시에도 광화문의 위치가 크게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첫 번째 전제에 대해서는 최근의 침전지역 발굴조사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얻을 수 있다. 즉 고종때 강녕전 유구의 지하층에서 임진왜란 전 것으로 추정되는 3차례 이상 시기가 다른 건물 유구가 출토되었는데 세 건물은 모두 정면 7칸 이상 규모로 침전으로 판단되고 좌향도 동일한 모습이었다.¹⁷⁾ 따라서 강녕전은 창건시부터 같은 위치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재건을 거듭했으며 고종때 중건 건물 역시 같은 위

치에 조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전제 즉 근정전에서 광화문까지의 중요 건물 위치가 창건시와 고종 중건시까지 유사하다고 보는 근거는 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관련 문헌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경복궁은 내전은 자주 개축이 있었지만 근정전에서 광화문 사이 공간은 임진왜란까지 대대적인 개축 기사를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광화문 앞에 좌우로 도열한 의정부부를 비롯한 6조 관청은 이미 태조때 자리잡아 그 후 큰 변개 없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좌우 궁성 양 끝에 있는 동서 십자가 역시 늦어도 세종 이전에 설치되어 궁성의 외곽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근정전에서 광화문 사이는 창건시 조성된 골격에 큰 변화 없이 임진왜란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종 중건시에도 관련 문헌들을 살펴 볼 때 광화문 앞 6조의 관청들은 아무런 위치 변동 없이 그대로 존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창건시 근정전에서 광화문 위치는 근본적인 변동 없이 고종 중건으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태조실록』에 기록된 창건시 정전 주변의 몇 가지 수치는 고종 중건시의 수치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것도 창건시와 고종 중건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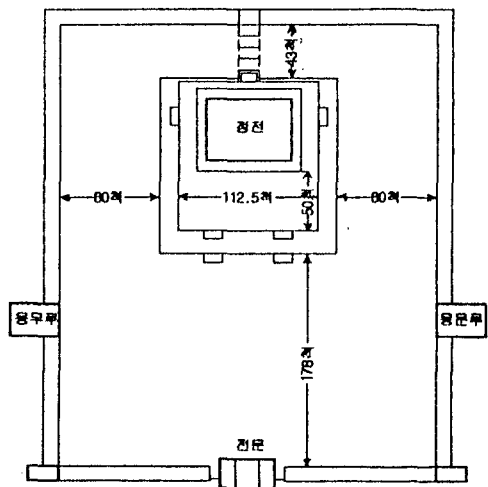


그림-4 창건 경복궁 정전 월대 및 전정 추정안

17 『경복궁침전지발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번의 발굴에서 창건시 건물 유구라고 단정할 만한 것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적어도 임진왜란 소실 이전 것으로 추정하는 몇 개의 건물 유구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강녕전 터에서 임란 이전으로 판단되는 서로 시기가 다른 겹쳐져 있는 세 개의 건물 유구를 찾아냈으며 건물 주변 천랑 유구의 일부 그리고 경성전과 연생전의 임란 이전 건물터의 흔적을 출토해 냈다.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조성 시기가 다른 강녕전 건물의 복원 평면도도 추정해서 제시하였다. 비록 세 가지 복원 평면도 중 어느 것도 창건시의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것은 제시되지 못하였지만 이번 발굴 조사에서 적어도 강녕전이 창건시부터 현재의 위치에서 거듭해서 중건되었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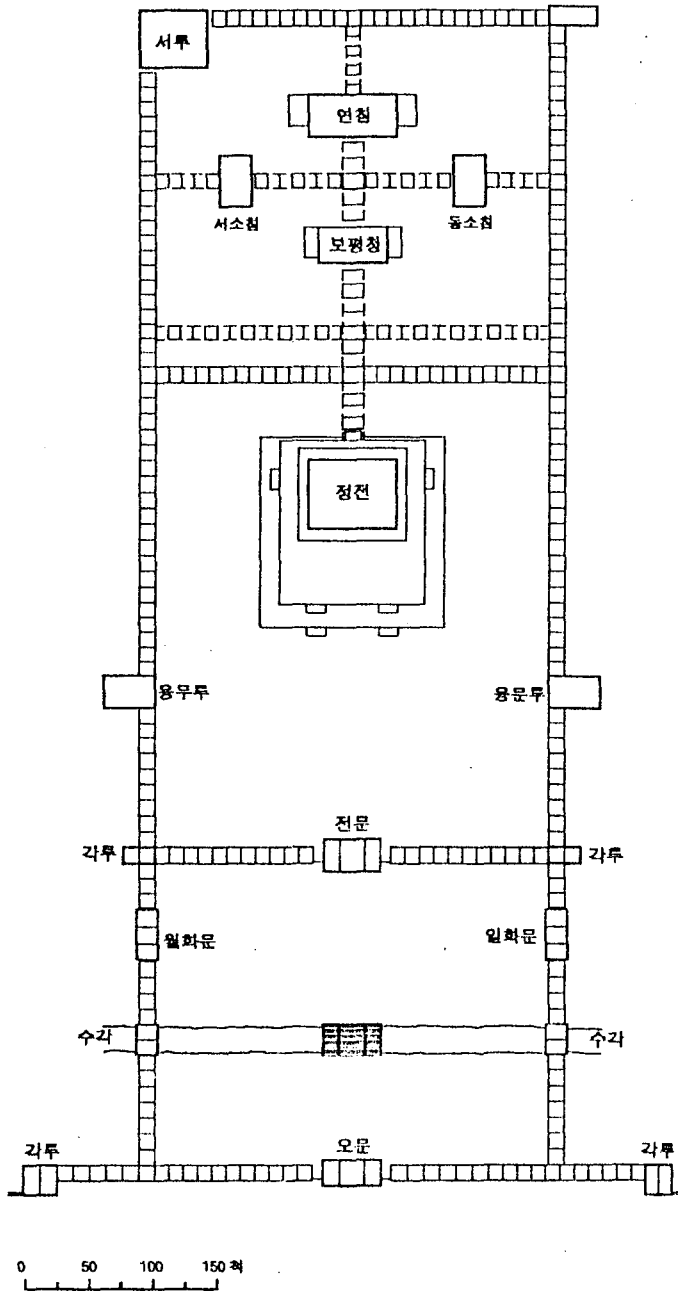


그림-5 창건시 경복궁 중심부 배치 추정 복원안(杉山信三의 복원안을 일부 수정)

전 주변 건물 위치의 근사성을 말해준다. 즉 창건시 정전 월대의 '심 50척'은 고종때 편찬된 『궁궐지』에 적은 월대 수치인 '상월대 남북 50척 5촌'과 거의 유사하며, 고종때 제작된 「북궐도형」과 비교해도 근정전 앞 마당의 수치도 창건시 수치와 어느 정도 유사한 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고종 중건시 근정전에서 홍례문 사이의 주요 건물 위치와 행랑의 크기는 창건시 건물 위치를 추정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4는 이런 관점에서 고종 중건시 건물 위치를 바탕에 두고 『태조실록』에 제시된 정전 주변 수치를 적절히 대입해서 작성해 본 정전 주변 건물 배치 추정안이다. 여기서 『태조실록』에 적힌 월대의 크기 '심 50척, 광 112.5척'은 상월대의 실제 월대로사용될 수 있는 부분의 치수로 보았으며, 정전의 규모도 현존 근정전과 비슷한 규모로 설정하였다.¹⁸⁾ 아울러 『태조실록』의 전정 너비 치수 '동서 각 80척, 남 178척, 북 43척'은 하월대에서 각 방향의 월랑까지 거리로 보았다. 그에 따라서 정전 좌우 월랑의 주간 치수는 스기야마가 설정한 10척보다 커져서 약 12.5척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정전의 월랑으로 오히려 적절한 규모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동서 월랑은 고종 중건시와 달리 단랑으로 되고 그 위치도 조금 앞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¹⁹⁾ 아울러 동서 월랑의 3간 누인 응문루와 응무루에 대해서도 두 누가 왕실의 서적을 보관하거나 왕이 칙석놀이를 관람했다는²⁰⁾

기사로 미루어 일반 행랑과는 구분되는 규모로 보았다.

한편 내전의 경우는 강녕전의 위치를 발굴시 출토된 현존 건물지로 보고 내전의 남쪽 한계를 현존 근정전 북행랑 위치로 보고 나머지 보평청과 동서 소침의 위치는 천랑의 주간 간격에 맞추어 잡았다. 이 때 천랑의 모습을 추정한 근거로는 이번 침전지 발굴조사시 출토된 천랑으로 보이는 유구의 형태를 자료로 삼았다. 아울러 천랑의 형태로는 유구에서 출토된 몇 가지 천랑가운데 비교적 태조실록의 기사와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참고로 하였다. 즉 강녕전에서 남쪽으로 세 번째 주간에서 동서 방향으로 또 다른 천랑이 이어져 각각 동서 소침과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된 예를 택했으며 천랑의 주간 치수는 임의로 설정하였다. 또한 강녕전과 보평청의 평면 형태에 대해서는 『태조실록』에 기록한 '동서 이방'을 본 건물에 딸린 협실로 보아 측면 주간 크기를 조절하였다.²¹⁾

이러한 추정 작업을 통해서 완성한 새로운 추정 복원안이 그림-5이다. 이 복원안에서도 중요 건물은 모두 남북 직선축상에 나란히 놓이고 중요 건물들은 모두 좌우 대칭인 내모 반듯한 행랑으로 둘러싸인 모습이다. 물론 이것도 불완전한 하나의 추정안에 지나지 않으며 새로운 자료의 보완을 거쳐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고려 궁궐과의 관계에서 본 창건 경복궁 공간구성의 특징

경복궁의 공간구성을 고려 궁궐과 비교해 볼 때 뚜렷한 차이점과 함께 몇 가지 공통점도 발견된다. 경복궁은 건물의 배치에서는 고려의

18 상월대와 하월대 동서 폭과 전면 폭 역시 궁궐지의 수치를 근거로 각각 15척과 20척으로 잡았다.

19 『태조실록』에 정전 동서 행랑이 내전의 동서 행랑과 연했다(與內東廊連)고 하는 기사로 미루어 이 부분은 고종 중건시처럼 정전 동서 행랑이 내전 행랑보다 넓은 것이 아니고 정전과 내전 행랑이 일직선상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

20 태조는 응무루에 올라 칙석놀이를 구경하였으며(『태조실록』 권11, 태조6년 5월병진), 『성종실록』에는 “본조에서는 조종조로부터 내려오면서 유교를 숭상하고 도리를 중하게 여겨서, 서적을 나라의 중한 보배로 삼아 천하의 책을 모아서 응문루, 응무루에 간직하여 고열에 대비하였습니다.”(『성종실록』 권, 성종14년 12월 임오)는 기사도 보

인다.

21 '동서 이방'을 협실로 본 근거는 『태조실록』의 중요 관련 기사에서 추정한 것이다. 『태조실록』 권, 태조10년 5월 기묘일 기사에는 중요 정전 좌우의 협실을 가리켜 '동서 이방'이라고 말한대목이 있다. 중요 협실은 정전 좌우에 측면 주간이 약간 작은 형태로 되어 있다.

궁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보였다. 그러나 도성내 궁의 위치나 건물구성에서는 고려 궁궐의 관습을 상당 부분 답습했다. 경복궁 공간구성의 특징은 바로 이런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복궁이 고려 궁궐과 가장 대조되는 부분은 그 전체적인 건물 배치방식이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창건시 경복궁의 건물 배치는 남북 직선축선 상에 정문과 전문, 정전과 보평청, 연침이 나란히 배열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정전과 연침 주변에는 행각이 감싸면서 엄격한 좌우대칭 구성을 이룬다. 이에 반해서 고려 정궁의 건물 배치는 지형을 따라 불규칙한 배치를 하고 정전이 두 곳으로 분산되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즉 고려 정궁은 두 개 정전에 의한 복합적인 구성을 하고 있었으며, 상용 정전이 있는 지역은 동남쪽으로 흐르는 개천을 따라 정전과 편전, 침전이 지형에 의지해서 불규칙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경복궁의 건물 배치가 고려 정궁과 달리 직선축과 좌우대칭을 기본 개념으로 삼는데에는 경복궁이 자리 잡은 지형 조건이 한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경복궁이 지어진 지형은 고려 정궁이 있던 곳과 달리 전체적으로 북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진 평탄한 곳이었다. 따라서 건물을 배치하면서 지형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직선축을 살리고 좌우대칭으로 건물 배치를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경복궁 창건을 주도한 사람들의 정신적인 가치관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경복궁 창건은 태조 이성계의 명에 의해 착수되었겠지만 실제로 터를 잡고 궁궐 공사를 주도한 인물은 권중화나 정도전과 같은 역성 혁명의 중심 세력이었다. 특히 정도전은 궁궐은 물론, 종묘와 사직, 도성내 도로 터를 정하는 일을 주관했고 나중에 궁이 완성된 후에는 각 전각의 이름을 짓는 등 왕의 각별한 신임 아래 궁궐 조성에 크게 영향을 행사한 인물이었다.

정도전은 경복궁의 이름을 지은 것은 물론 신왕조 창건에 필요한 제반 법 제정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여 신 왕조의 실제적인 통치 틀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정도전이 지은 『조선경국전』 가운데 경복궁의 건설 이념을 반영하는 대목으로 예전총서의 아래 문구가 주목된다.

“신은 생각하건대, 예에 관한 설이 많지만 그 핵심은 질서라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조정은 존엄을 주로 한 때문에 인군은 높고 신하는 낮은 것이며 인군은 명령하고 신하는 그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朝觀과 會同을 하여 大位를 바꾸고 백관을 통솔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조정의 질서인 것이다.”

예의 핵심은 질서에 있으며 조정의 질서란 왕과 문무백관사이에도 위계를 바로하고 질서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예의 개념이 건축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야 하는 대상이 다른 아닌 궁궐이다. 그런 점에서 궁궐은 질서가 바로 잡힌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정도전의 생각이었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경복궁의 건물 배치는 기본적으로 고대 중국의 궁궐 배치개념인 전조후침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풀이된다.²²⁾ 전조후침 즉 앞에 정치하는 조정을 두고 뒤에 일상 생활하는 침전을 갖추는 것은 예기등 중국의 고대 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물 배치의 기본 원칙중 하나였다. 정도전은 바로 이러한 고대 예서의 배치 원칙을 경복궁에 실천함으로써 경복궁이 조정의 질서를 상징하는 궁궐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경복궁이 고려 궁궐과 달리 남북 중심축선상에 중요 전각을 일렬로 배열하여 모든 중요 전각이 남향하도록 하고 명확한 좌우대칭을 갖추도록 한 배경에는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신진 사류들의 궁궐관이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반면, 경복궁은 도성내 궁궐의 위치에서 고려 궁궐과 일치할 뿐 아니라 궁궐내 건물구성

22 한동수, 앞글 제3장 p.6에서 경복궁의 배치원칙이 전조후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중국 명조의 궁궐과 공통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방식이나 건물 형태에서 고려 궁궐 특히 고려 후기 궁궐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조성되었음이 확인된다.

도성내의 입지조건으로 보아 고려의 정궁과 경복궁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고려 개경과 한양은 지형 조건이 거의 흡사하였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도성내를 관통하는 물줄기가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흘러 나가며 주산이 북쪽 중심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공통된다. 궁궐이 놓이는 위치도 거의 동일한 자리를 선택하였다. 고려 정궁이나 경복궁이 모두 서북쪽에 치우친 주산 아래 남향해서 궁궐을 놓은 것이다.

궁궐 정문 앞으로 6조의 관청을 좌우에 도열한 방식도 동일하다. 다만 고려의 경우는 황성 정문이 동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청들은 남북으로 마주 보고 있는데 비해서 경복궁은 정문이 정남향하고 있고 관청들이 동서로 마주 보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것은 궁궐 정문의 좌향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궁궐 정문 앞으로 6조를 비롯한 중앙 관청을 좌우에 배열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건물 구성에서도 경복궁은 고려 후기 궁궐의 특징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고려 정궁은 전기에 두 개 정전을 운영하다가 후기에 들어와 단일 정전이 조성되었다. 동시에 궁궐에서 내전의 비중이 커졌다. 그리고 공민왕 이후에는 새롭게 보평청이 등장하여 편전으로 쓰였다. 경복궁에서도 정전이 단일화되고 내전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보평청이 내전의 중요한 건물 중 하나로 등장하였다. 이방의 존재 역시 고려시대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고려 정궁은 일상적인 조하의식 등을 위한 정전으로 건덕전을 두고, 대규모 불교행사나 송나라 사신 접대를 위해 회경전을 두어 2 개 정전을 운영하였다. 한 궁궐에서 정전을 여러 개 두어 각기 기능에 맞추어 왕의 의식에 대비하는 것은 중국의 궁궐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예이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안학궁에서도 정전

은 복수 이상으로 조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와서 정궁인 본궐에는 정전의 기능을 갖는 건물로 유일하게 강안전만이 조성되었다. 이것은 고려 후기에 들어와 왕권이 약화되거나 원나라의 정치 간섭에 따라 궁궐내에서 치르는 의식에 변화가 생긴 결과라고 추정된다. 또한 왕들이 거의 본궐에 머물지 않고 별궁이나 이궁을 상용 궁궐로 사용한 것도 본궐의 정전을 강안전 한 곳으로 축소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경복궁이 창건되면서 정전을 단일 건물로 삼은 것은 이러한 고려 후기 궁궐에서 나타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물론, 고려 정궁도 처음부터 정전을 두 곳으로 마련한 것은 아니었고 시대 흐름에 따라 조하의식을 치르는 건덕전외에 색다른 의식을 치를 장소로 회경전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경복궁도 궁궐내 의식이 다양해 지면서 의식을 위한 새로운 건물이 생겨날 가능성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경복궁의 경우, 전체 건물 배치 형상으로 보아 새로운 정전이 들어설 여지는 상정하기 어렵다. 경복궁에서는 모든 국왕의 의식은 근정전 한 곳에서만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단적인 예는 『세종실록』의 오례 편에 실린 근정전에서의 조하의식 그림과 망궐행례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하의식은 왕이 신하들로부터 하례를 받는 것이므로 당연히 왕은 근정전 안에 어좌를 마련하고 그곳에 앉아 문무백관의 하례를 받는다. 그러나 망궐례는 중국 황제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므로 사정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 때에는 왕은 근정전을 비워두고 근정전 건물 앞 상월대에 배위를 차려 놓고 여기서 예를 표한다. 물론 왕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종친과 문무백관의 위치도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고려시대에 이 두 의식은 다른 건물에서 치렀다. 조하의식은 건덕전, 중국 사신이 들고 오는 중국 황제의 서신은 회경전에서 받았다. 그러나 경복궁에서는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의식을 모두 근정전에서 치르도록 한 것이며 그 배경에는

역시 고려 후기 이후 정착되어 온 단일 정전의 관습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정전이 단일화되던데 반해서 창건 경복궁에서 내전의 기능은 더 커졌다. 창건시 궁궐 중심부는 『태조실록』의 기사에서 보듯이 내전과 정전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그만큼 내전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내전에는 연침을 비롯해서 동서 소침과 보평청이 포함되었다. 편전 기능을 갖는 보평청이 내전에 속한 것은 궁궐에서 내전이 갖는 영역이 확장되어 있었음을 말해 준다.²³⁾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려사』의 기사를 종합해 보면, 고려 후기에 들어와서 궁궐내에서 그 비중이 높아진 대표적인 영역이 내전이였다. 창건시 경복궁에서 보평청까지 포함해서 내전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고려 후기 궁궐내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보평청의 존재는 경복궁이 고려후기 궁궐의 관습을 그대로 계승한 구체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보평청은 고려말 공민왕때부터 궁궐내에 등장하는 건물이다. 왕은 이곳에서 죄인을 다스리는 업무외에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신하들과 의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평청이 경복궁 창건 건물에 포함된 것은 고려말의 궁궐 운영방식이 경복궁에 그대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경복궁의 보평청은 얼마후 각 전각의 이름을 지면서 사정전으로 명명되었다. 사정전이 되고 난 이후에는 보평청이라는 호칭은 사라지고 사정전은 편전으로 통칭하게 된다. 따라서 보평청이라는 호칭은 창건시 일시적으로 쓰여진 명칭이다. 그러나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보평청이라는 호칭을 『태조실록』에 기록한 점에서 고려 궁궐과의 강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23 경복궁이 창건되고 10년후인 1405년(태종5)에 창덕궁이 창건되었을 때에도 보평청이 지어졌지만 이 때 보평청은 내전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창덕궁에서는 보평청과는 별도로 편전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조선초기의 급격한 정치와 사회 변화를 따라 경복궁 창건에서 창덕궁 창건 사이의 10년 동안에 궁궐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연침과 보평청에 이방이 딸린 것도 고려시대 건물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연침은 정면 7간에 좌우에 이방 각 2칸이 딸려 있고, 보평청은 정면 5간에 좌우 이방 각 1칸이 있다고 하였다. 『태종실록』에서는 종묘 좌우 협실을 다른 표현으로 이방이라고 적은 대목이 있다. 따라서 연침과 보평청의 이방 역시 좌우 협실의 일종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본 건물의 좌우에 본 건물보다 건물 폭을 줄인 부속 건물을 연결시키는 사례는 고려 정궁의 회경전이나 그 뒤 장화전 건물지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회경전의 경우는 정면 3칸 건물 좌우에 바닥을 약간 낮추어 각기 3칸의 부속 건물이 딸린 모습이며 장화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본 건물 좌우에 본 건물보다 격을 낮춘 건물을 좌우에 연결시킨 모습이다. 아직 고려시대 궁궐에서 이방을 갖추었다는 기록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회경전 좌우 건물 모습은 경복궁의 이방과 공통된 성격을 보여준다.

경복궁의 건물구성이 기본적으로 고려 궁궐과 공통되는 배경에는 궁궐내에서 오랫동안 익숙해 온 일상의 관습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창건시 경복궁은 내전이 중요시되고 내전 안에 보평청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것은 고려 후기 궁궐의 특성을 그대로 계승한 결과였다.

경복궁 창건에서 이러한 궁궐내 관습을 계승하는데 기여한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김사행을 꼽을 수 있다. 김사행은 환관 출신으로 고려말부터 여러 임금의 총애를 받아 왕실의 건물 조성에 간여한 바 있다. 김사행은 1393년(태조2) 2월에 있었던 계룡산 아래 궁궐 조성에 참여했으며 그해 7월에는 그 공로로 포상받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왕의 교지에 이르기를 “판내시부사 김사행은 내가 왕위에 오른 초기에 궐내의 제도가 대강 마련되고 갖추어지지 못했는데, 前朝의 成時의 궁중 의식을 일일이 들어 지나친 것은 줄이고 모자란 것은 보태어서 내조의 다스림을 장식했으니, 공을 기록할 만하며, --”라고 하여 업적을 강조하였다.²⁴⁾ 김

사행이 경복궁 창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여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태조2년의 사례로 미루어 궁궐내 제반 일상 생활에 관해서는 고려시대부터의 관습이 변함없이 이어져 온 것을 위의 기사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결국 창건 경복궁은 고려이래로 형성되어 온 궁궐생활의 관습과 새 왕조의 질서를 수립하고 자 한 예의의 혼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궁궐을 도성 안 서북쪽에 주산 아래 두고 건물 구성에서 내전을 중시하고 보평청을 둔 것은 고려 이래로 형성되어 온 관습의 소산이었다. 반면, 궁을 남면시키고 궁 앞에 관청을 동서로 배열하고 중요 건물을 직선축상에 일렬로 배열하여 좌우 대칭 구성을 만든 것은 분명히 과거의 궁궐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낸 바탕은 유교적 예의에 입각한 왕권의 질서 강조의 결과였다. 경복궁은 이처럼 오랜 관습과 유교적 예의라는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꾸며졌으며 경복궁 공간구성의 특징은 바로 이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5. 맺는글

고려시대의 궁궐은 고려 후기 즉 무신란 이후에 들어오면서 몇 가지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다. 역대 왕들은 송악산 아래 자리잡은 고려 정궁에 거처하는 대신에 도성내 여러 곳에 산재한 별궁이나 이궁에 자주 머물렀다. 이런 경향은 원나라와의 항전을 끝내고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에 더 심화되어 고려 말기까지 이어졌다. 이 때부터 정궁은 별궁들과 구분하기 위해 본궐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으며 본궐에는 강안전만이 유일한 궁궐의식이나 불교의식을 치르는 정전으로 쓰였다. 이점은 13세기 이전 고려 정궁이 상용정전과 특별한 행사용 정전으로 두 곳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것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즉 강화천도 이전까지 고

려 정궁은 일상적인 궁중 의식을 치르는 상용정전으로 건덕전이 있고 대규모 불교의식과 송나라 사신접견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행사용 정전이던 회경전 두 곳으로 나뉘어 운영되었으나 고려 후기에 와서 모든 행사는 강안전 한 곳으로 단일화되었던 것이다.

또한 고려 후기에 와서는 궁궐내에서 내전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공민왕때부터는 일종의 편전 기능을 갖는 보평청이라는 건물이 등장하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상은 『고려사』 세가편의 궁궐 관련기사들을 종합해서 얻은 결과였다.

한편, 『태조실록』의 경복궁 창건관련 기사에서는 경복궁의 건물구성이 기본적으로 내전과 정전 영역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 배치 형태는 남북 직선축 상에 중심 건물을 두고 행랑이 좌우 대칭으로 감싸는 형태라는 것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종래의 추정 배치도에서 내전의 천량이나 정전 월대 크기를 수정해서 새로운 복원안을 제시하였다.

창건 경복궁을 고려 궁궐과 연관지어 검토해 본 결과로는 경복궁이 전체 건물 배치에서는 고려 궁궐과 대조되는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도성내 궁궐의 입지조건이나, 궁궐의 기본적인 건물구성, 그리고 구체적인 건물의 평면구성에서는 고려 궁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경복궁의 기본적인 건물 배치는 고려시대 궁궐과 성격을 달리하는 질서 정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치의 출현 배경에는 집권 유학자들이 추구한 새 왕조의 통치 이념이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즉,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집권 사대부들은 새 왕조의 통치 이념을 예제에 입각해서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잡는 것으로 삼았으며 경복궁의 건물배치는 바로 이러한 예제의 질서를 상징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실제 궁궐의 구체적인 건물 구성에서는 고려시대 특히 고려 후기 궁궐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경복궁의 도성내 입지는 개경의 고려 정궁 입지와 거의 동일

24 『태조실록』 권3, 태조2년 2월 을유 및 권4, 태조 2년 7월 경오

하였다. 정전을 두 곳 운영하던 고려 정궁과 달리 경복궁에서는 정전이 단일 건물로 조성되었다. 이것도 고려 후기에 와서 고려 본궐의 정전이 강안전 한 곳으로 축소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아울러 『태조실록』 기사에서 경복궁의 건물 구성을 크게 내전과 정전 영역으로 기술한 점도 고려 후기에 와서 내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과 서로 공통되는 현상으로 보였다. 무엇보다 경복궁 내전의 중심 건물 중 하나로 보평청이 자리잡은 것은 공민왕 이후 나타난 고려 궁궐의 영향을 가장 집적적으로 나타내 주는 점이었다. 또한 연침과 보평청 좌우에 조성된 이방도 고려 궁궐에서 유사한 부분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경복궁은 전체 건물 배치에서는 고려 정궁과 전혀 개념을 달리하는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궁궐의 입지조건, 그리고 건물구성 방식에서는 고려 궁궐 특히 고려 후기의 궁궐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조성되었다. 경복궁 공간 구성의 특징은 바로 이 점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 후기 궁궐의 건축적 관습을 계승하여 건축의 토착성을 유지하면서 예제에 입각한 새 왕조의 통치 이념을 표면에 내 세움으로써 경복궁은 궁궐 건축의 새로운 형태를 열어나가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 『高麗史』
- 『太祖實錄』
- 『太宗實錄』
- 『世宗實錄』
- 『成宗實錄』
- 정도전, 신호열의 공역, 『국역 삼봉집』, 민족문화추진회, 1977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史-古蹟編』, 서울特別市, 1963
- 杉山信三, 『韓國の中世建築』, 相模書房, 1984
- 朴龍雲, 『高麗時代 開京 研究』, 一志社, 1995

- 정찬영, 「만월대유적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1, 1989
- 國立文化財研究所, 『景福宮寢殿地域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1995
- 김동욱, 「11, 12세기 고려 정궁의 건물구성과 배치」, 『건축역사연구』, 제13호, 1996
- 韓東洙, 「初探中朝兩國建築文化的比較與交流」, 清華大學工學博士學位請求論文, 1997

The architecture of the Kyongbok Palace in the early years of the Chosun Dynasty

Kim, Dong Uk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ABSTRACT

It could be said that the Kyongbok Palace, the main palace of the Chosun Dynasty which built in the early years of the Dynasty, had two main architectural characters. One ; the entire building complex was arranged under the influence of ancient Chinese building principle based on the Confucian ideas. Two ; building compositions and shape of each buildings were succeeded from the palace of the former Koryo Dynasty, especially on the latter periods of it. The architecture of the Kyongbok Palace had formed its own uniqueness by developing these two characters.